

## 설 연휴 덮친 '6주택 vs 재건축'

(장동혁 보유 집)

(이 대통령 분당 집)

이 대통령·장동혁, SNS 부동산 설전  
대통령, 장동혁 6채 보유 기사 올려  
“나쁜제도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  
장 “대통령, 분당 50억 재건축로도”  
국힘 “집 안 파는 대통령이 사회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설 연휴, 정치권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부동산 논쟁으로 뜨거웠다. 영화 관람을 제외하고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를 이틀에 한 번꼴로 내자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도 이 대통령 소유 경기 분당 아파트를 고리로 맞불을 놓았다.

공세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국민의 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국민의 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준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다룬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그러자 장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에 집 6채 중 농가 주택엔 95세 노모가 살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정도다. 장 대표는 17일엔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42세 테일러, 청각장애 아들에 수화로 금 소식 미국 봅슬레이 선수 엘라나 메이어스 테일러(42 오른쪽)가 17일(한국시간) 여자 1인승 정상에 오른 뒤 듣지 못하는 네 살 아들 노아(왼쪽)에게 수화로 금메달 소식을 전하며 감격하고 있다. 노아와 청각장애에 다운증후군까지 앓는 니코(여섯 살)를 키우는 테일러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다섯 번째 올림픽에 출전해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관계기사 2, 3, B6, B7면 [사진 IBSF 페이스북]

재건축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으냐”고 역공을 폈다. 이 대통령이 1998년에 구입한 경기도 분당 소재 아파트가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된 걸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앙당에선 이 대통령의 ‘분당 재

건축 아파트’와 장 대표의 ‘6주택 보유’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선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자식”(박지원 의원), “그 분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택 6채’를 지키기 위한 것인

가”(채현일 의원)라고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 힘도 물러서지 않고 “집 팔라고 국민은 협박하면서, 떨떠름한 한 채 안 내놓는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사회악 아닌가”(윤희숙 전 의원)라고 했다. 오현석·류호림 기자

▶ 4면 ‘부동산’으로 계속

### 정은경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 저소득층 비만예방에 쓸 것”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설탕부담금은 종량(세) 방식으로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청소년 비만 예방 및 치료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 “지역 맞춤 교육·수련을 통해 정착을 돋겠다”고 했다. ▶ 관계기사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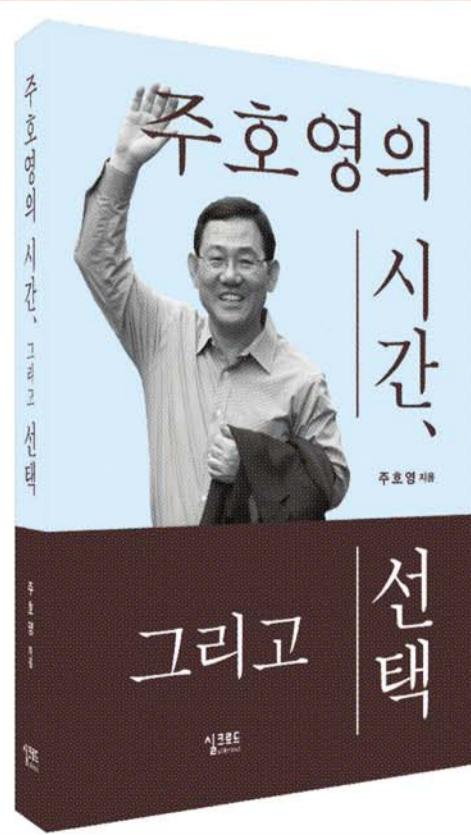
최서인·김성진·정진호 기자

▶ 8면 ‘윤 선고’로 계속

#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주호영의 22년  
정치 여정,  
소리 없이 강했던  
결단의 시간들!

주부의장이 나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특히 매일 새벽 어김없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들에게 큰 용기와 책임감이 되었을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주호영 의원은 무척 달랐다. 언제나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배려가 몸에 베어 있었다. 정당하게 타협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췄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주호영 의원과 같은 합리적 보수만이 국민적 지지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주호영 의원이라고 확신한다.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  
있습니다.

432페이지  
길: 35,000원

시크로드  
silkroad  
031-955-6333

## 오늘 오후 3시 윤운명 결정

443일만에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구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간부 등 모두 8인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행 위로 판단하는지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국헌 문란의 정의는 형법 91조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침해했다고 본다.

또 다른 구성 요인인 ‘폭동’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판례로 확립돼 있다. 대법원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보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라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서인·김성진·정진호 기자

▶ 8면 ‘윤 선고’로 계속